

魏晉시기 英才兒童과 기록의 關係*

- 『世說新語』에 등장하는 芝蘭玉樹를 중심으로

金洙景**

< 목 차 >

1. 序論
2. 本論
 - 2.1 中國 古典文學에서 英才兒童의 기록
 - 2.2 『世說新語』에 기록된 아동의 雋語逸事
 - 2.3 『世說新語』와 俊才 기록의 關係
3. 結論

1. 序論

『論語·子罕』에 ‘후배들이란 두려운 존재이니, 장래의 그들이 오늘의 우리만 못할 것임을 어찌 알겠는가? 사십이나 오십이 되어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다면, 그도 두려워할 게 못되는 사람이다.’¹⁾ 라고 하여 英俊한 젊은이는 敬懼할 대상이며 나이 들기 전 일찍 명성을 떨쳐야 함을 시사하였다. 중국 고전에서 俊才의 어린 시절의 관찰과 기록은 『史記』에서 시작되어 『漢書』, 『後漢書』, 『晉書』 등으로 계승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기록은 주로 객관적 사실과 傳言의 기록이며 數量적으로도 많은 양은 아니다. 그러던 것이 『世說新語』에 이르러 아동의 言辭·行動·學文·個性·人品 등등 다양한 방면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며 그 數도 현저히 증가한다. 『世說新語』는 東漢末에서 東晉末에 이르는 200여 년간 실존한 인물 600여명의 언행과 일화를 수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余嘉錫의 『世說新語箋疏』注에 언

* 이 논문은 2007년 BK21 고려대학교 중일언어문화교육연구단의 지원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高麗大 中日語文學科 博士課程

1) 『論語·子罕』: 後生可畏 焉知來者之不知今也; 四五十而無聞焉 斯亦不足畏也.

급되어 있는 인물까지 망라하면 약 150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 정도에 이르며 있으며 전체 1300여개의 고사 가운데 100편이 당시 아동의 言行逸事와 관련된 고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魏晉시기 접어들어 전대미문하게 아동에 대해 주목 하는 까닭과 『世說新語』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아동의 모습 및 당시 사회에서 아동의 위치와 교육환경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2. 本論

2.1 中國 古典文學에서 英才兒童의 기록

『世說』이전의 典籍에서 아동과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史記列傳』에 기록된 200여명의 인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史記』에서 특정 인물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나 천재성 등에 대한 언급을 상당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는데, 建國三傑인 蕭何, 張良, 韓信 등은 물론 통일공의 세운 周勃, 陳平 등의 유년기에 관한 기록도 전해지는 바가 없다. 다만 賈誼에 대해 ‘그의 나이 18세 때, 시를 암송하고 작문에 능통하여, 郡內에 명성이 알려졌다. 孝文帝가 그를 초빙하여 廷尉로 삼았다. 가생의 나이는 20여 세로, 박사 중에서 가장 연소자였다.’²⁾ 라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漢書』역시 인물의 유년기 및 영재 등에 대해 많은 언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劉歆傳』에 ‘劉歆의 字는 駿이며 어린 시절 『詩經』과 『書經』에 능통하여, 능히 글을 지었다.’³⁾ 라는 기록과 『終軍傳』에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해 언변이 좋고 박학하여 능히 글을 지었고, 군중에 널리 알려졌다.’⁴⁾ 그리고 『揚雄傳』에 ‘어려서 학문을 좋아해 박학하여 모르는 것이 없었다.’⁵⁾ 는 기록이 그 전부

2) 『史記』卷84: 自幼聰慧過人, 年十八, 以能頌詩屬書聞于郡中. ~ 文帝召以爲博士. 是時年二十餘. 最爲少.

3) 『漢書』「劉歆傳」: 字駿, 向之少子也. 少穎悟, 通詩書, 能屬文.

4) 『漢書』「終軍傳」: 少好學, 以辨博能屬文, 文於郡中.

5) 『漢書』「揚雄傳」: 少而好學, 博覽無所不見.

로 내용에서 볼 수 있듯 대부분 학문의 박식함에 대한 것이다. 이어 『三國志』에 이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해 진다.

『三國志·魏書·武帝紀』

조조는 어려서부터 기지와 총명함과 권모술수가 있었으며, 의협심이 강하고 멋대로 놀기를 좋아해, 덕행과 학업을 닦는 일을 등한히 했다. 따라서 일반 사람들은 그를 뛰어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梁나라 사람 橋玄과 南陽의 何顒만이 그를 남다른 인물로 알아주었다.⁶⁾

『三國志·魏書·文帝紀』

나이 여덟에 이미 글을 잘 지었고, 뛰어난 재주가 있어 경전과 제자백가를 두루 꿰뚫었다. 또한 말타기와 활쏘기에도 뛰어났고, 검술을 좋아하였다. 茂才(秀才)에 추천되었으나 나가지는 않았다.⁷⁾

『三國志·魏書·明帝紀』

덕행 명제는 태어난 지 5, 6년 후부터 수려한 풍모를 지니고 있어서 조조는 “나의 기반은 너에 이르러 3대째가 된다.” 고 하면서 조정의 연회 때 동행하였고, 명제를 시중 측근들과 함께 있게 할 정도였다. 조예는 학문을 좋아하고 박식하였으며, 法理에 남다른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⁸⁾

이와 같이 어린 시절의 학업과 풍모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사실과 傳言 등을 간단하게 기록한 것이 『世說』에 이르러 수량 상 갑작스러운 증가를 보이고 서사하는 내용도 다양해지며 표현과 묘사에 있어서도 전대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심지어 「夙慧」편을 따로 두어 아동관련 고사를 다룰 뿐 아니라 德行, 言語, 方正, 文學, 雅量 등등에서도 성인들의 고사와 더불어 아동관련 일사를 기록하고 있다.

2.2. 『世說新語』에 기록된 아동의 雋語逸事

6) 『三國志·魏書·武帝紀』卷1：太祖少機警，有權數，而任俠放蕩，不治行業，故世人未之奇也；惟梁國橋玄、南陽何顒異焉。

7) 『三國志·魏書·文帝紀』卷2：年八歲，能屬文，有逸才。博貫經傳，善騎射，好擊劍，舉茂才，不行。

8) 『三國志·魏書·明帝紀』卷3：帝生數歲而有岐嶷之姿，武皇帝異之。曰：「我基於爾三世矣。」每朝宴會同，與侍中近臣並列帷幄。好學多識，特留意於法理。

『世說』에 실린 아동은 儒敎적 行動學止와 品性을 교육받은 魏晉 명사들의 子弟들로 『世說』과 魏晉을 구성하고 후대를 이어갈 책임을 지고 있는 ‘準名士’ 들이다. 『世說』에는 魏晉 成人들의 도덕수양이나 학술사상과 문학관념, 재능, 인품과 개성, 일상생활 및 인간관계 등과 관련된 모든 ‘人事’를 기록하며 ‘準名士’에 대해서도 거의 동일한 시야로 관찰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世說新語』에서는 특히 이들 ‘魏晉準名士’에 대해 학문의 조예가 깊어 경전 등을 꿰뚫어 대화가운데 典故를 운용하는 哲理를 지닌 모습, 언변이 뛰어나 어른과의 담론에서 한 치의 물러섬이 없이 應口輒對 하는 모습, 그리고 행동거지가 단정하여 方正한 인물로 칭찬되거나 품성이 모범이 되는 모습 등에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世說』에 실린 아동의 어떠한 學文과 · 言辯 · 態度 등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고대 중국에서 높이 평가하는 아동의 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하겠다.

2.2.1 科學·智·理

『論語』에서 이른 ‘志學’의 나이는 15세 이다. 그러나 『世說』에서는 많은 아동들이 15세가 되기 이전에 이미 경전을 통달하고 道家나 佛敎의 哲理를 이해하고 이를 삶의 지혜로 삼고 있는 모습을 기록한다. 학문에 통달한 아동 들은 경전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대화가운데 운용하기도 하고 삶의 지혜로 삼아 실천의지로 삼고 있는데 아동들이 면학하여 경전에 통달한 모습은 典故 활용 등을 이나 경구인용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그 실례를 통해 당시 아동이 익힌 經典과 학문 및 魏晉시기 행한 추구하는 교육의 모습을 살펴보고 하겠다. 다음은 『論語』의 구절을 인용하여 답으로 삼은 孫齊由에 관련된 고사이다.

孫齊由(孫潛)·孫齊莊(孫放) 두 사람이 어렸을 때 庾公(庾亮)을 만나보러 갔다. 齊由이 齊莊에게 묻길：“자가 무엇인고?”라고 하자, 답하길：“제유라고 합니다.”라고 했다. 齊莊이 묻길：“누구와 나란히 하고자 한단 말인가?”라고 하자, 답하길：“虛由와 나란히 하고자 합니다.”라고 했다. 다시 齊莊에게 자가 무엇이나고 묻자, 답하

길 : “齊莊이라고 합니다.”라고 했다. 齊由이 묻길 : “누구와 나란히 하고자 한단 말인가?”라고 하자, 답하길 : “莊周와 나란히 하고자 합니다.”라고 했다. 공이 묻길 : “仲尼(孔子)를 흠모하지 않고 莊周를 흠모하는가?”라고 하자, 대답하길 : “聖人(孔子)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도를 깨친 본인 까닭에 흠모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했다. 庾公은 어린 아이의 대답에 크게 기뻐했다(孫齊由·齊莊二人少時詣庾公, 公問 : “齊由何字?” 答曰 : “字齊由.” 公曰 : “欲何齊邪?” 曰 : “齊許由.” “齊莊何字?” 答曰 : “字齊莊.” 公曰 : “欲何齊?” 曰 : “齊莊周” 公曰 : “何不慕仲尼而慕莊周?” 對曰 : “聖人生知, 故難企慕.” 庾公大喜小兒對.)⁹⁾

庾亮의 질문은 현대에도 흔히 보이는 아이의 장래의 꿈을 묻는 것이다. 이에 대해 孫齊由에게 ‘孔子는 태어날 때부터 도를 깨쳐 흠모하기 어려워 노력하여 장주처럼 되겠다.’고 한다. 庾亮 공자에 대한 敬畏를 포함과 동시에 겸손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 말의 원문은 “聖人生知”는 『論語·季氏』 편에 나오는 “子曰 : 生而知之者, 上也.”의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즉, 孫齊莊 이미 ‘孔子’의 지론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 수준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¹⁰⁾ 孫齊莊의 학문이 어린 시절 상당히 깊었음을 엿볼 수 있는 고사를 한 편 더 살펴보겠다.

孫盛이 庾公(庾亮)의 記室參軍으로 있을 때 사냥을 따라갔는데, 그의 둘째 아들을 데리고 함께 갔다. 유공이 이를 모르고 있다가 사냥터에서 문득 孫齊莊(孫放)을 보았는데, 齊莊은 그때 7·8살이었다. 유공이 말하길 : “너도 왔구나.”라고 하자, 齊莊이 곧장 대답하길 : “이른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공을 따라가네.’”라고 했다. (孫盛爲庾公記室參軍, 從獵, 將其第二兒俱行. 庾公不知, 忽於獵場見齊莊, 時年七八歲. 庾謂曰 : “君亦復來邪?” 應聲答曰 : 所謂『無小無大, 從公于邁.』)¹¹⁾

위에서 말한 ‘無小無大, 從公于邁’은 『詩經·魯頌·泮水』의 한 구절인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공을 따라가네.’¹²⁾에서 인용한 것이다. 여기서 孫齊莊이 말하는 ‘公’이란, 공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른이나 아무것도 모르

9) 言語, 第50條.

10) 이에 대해 유공은 어린 아이의 대답에 크게 기뻐했다고 한다. 유공이 빈객들에게 말하길 : “王弼의 응답도 이보다 나을 수는 없을 것이오”라고 했다.

11) 言語篇, 第49條.

12) 『詩經·魯頌』 「泮水」 無小無大, 從公于邁.

는 아이들이나 모두 官職聲譽만 추종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는 아이의 순순한 눈에 비친 東晉의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회 관찰을 할 만큼 비판적이고 냉철한 시각을 갖춘 아동은 『詩經』 詩句節을 사용하여 날로 부패해져가고 있는 사회를 비유적으로 표현을 사용하여 풍자하는 모습을 보인다.¹³⁾ 이와 같이 『論語』와 『詩經』 등을 관찰하고 있어 그것을 대화에 운용하고 典故로 사용하는 등 학문적 깊이가 남다른 孫齊莊과 같은 아동의 모습을 통해 아동이 학문 소양이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아동의 눈에 비친 사회를 묘사하는데 典故를 사용하여 그 조소 효과를 극대화 하는 예이다.

張吳興이 8살 때 이가 빠졌는데 선배들은 그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놀려 말하길 : “그대의 입 속에는 어찌 개구멍이 뚫려 있는가?” 라고 했더니, 張吳興이 대답하길 : “바로 선배들이 이 구멍으로 나들게 하기 위해서요.” 라고 했다. (張吳興年八歲虧齒, 先達知其不常, 故戲之曰 : “君口中何爲開狗竇?” 張應聲答曰 : “正使君輩從此中出入!”)¹⁴⁾

張吳興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들은 사사로운 일로 아이를 조롱했고, 이에 대해 張吳興은 先達(덕행과 학문을 갖춘 명성 높은 선배들)이라 칭하며 끝까지 예의를 지킨다. 張吳興은 선배들의 질문에 예의를 갖추어 친절히 대답하며, 복수와 경각을 이어갔는데 그는 “입 속에 어찌 개구멍이 뚫려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그 구멍 즉, ‘개구멍은 선배들이 드나들기 위한 구멍이다’라고 하여 선배들과 개를 동일시하여 방금 전 그릇된 태도를 질책 한다. 더욱이 이는 『晏子春秋·內篇雜』 ‘使狗國者從狗門入’의 구절을 典故한 것으로 친박한 행동을 한 선배들의 행동을 經典의 고사로

13) 『世說新語』 言語篇 第56條에도 비슷한 고사가 실렸다. 簡文帝(司馬昱)가 撫軍將軍으로 있을 때 桓宣武(桓溫)와 함께 조정에 들어갔는데, 서로 앞장서라고 양보하다가 환선무가 부두이 먼저 들어가면서 말하길 : “님은 날 없는 창 들고 왕 위해 앞서 달렸다네.”라고 하자, 간문제 가 말하길 : “이른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공을 쫓아 달리네’라는 것이오”라고 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공을 쫓아 달리네. : 원문은 無小無大, 從公于邁. 『詩經·魯頌·泮水』의 한 구절. 또 詩經의 「衛風」에도 나온다. : 『詩經』 「衛風·伯兮」의 한 구절.

14) 排調篇, 第30條.

應口하여 인격에 적절한 모독을 가함과 동시에 자신의 학문적 소양도 부각 한다. 다음에 소개하는 고사는 『老子』를 이해하고 그 도리를 삶에 운용하는 孝武帝에 관한 일화이다.

晉 孝武帝가 12살 때 겨울인데도 낮에는 겹옷을 입지 않고 명주 홀적삼만 대여섯 겹으로 입었으며 밤에는 요를 포개서 깔았다. 謝公이 간언하길 : “聖體는 마땅히 일정한 체온을 유지 하도록 해야 하는데 폐하께서는 낮에는 너무 차게 하시고 밤에는 너무 덥게 하시니 아마도 옥체를 보양하는 방법이 아닌 듯합니다.” 라고 하자 孝武帝가 말하길 :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가만히 있기 때문이오.”라고 했다. 謝公이 물리나 감탄하길 : “황상의 논리는 선제에 못지않도다. 라고 했다” (晉孝武年十二, 時冬天, 晝日不箸複衣, 但箸單練衫五六重, 夜則累茵褥. 謝公諫曰 : “聖體宜令有常. 陛下晝過冷, 夜過熱, 恐非攝養之術?” 帝曰 : “晝動夜靜.” 謝公出, 嘆曰 : “上理不減先帝.”)¹⁵⁾

謝公이 간언한 ‘날씨에 몸을 보양하는 방법’에 대한 대화에서 ‘선제의 논리에 비견할 만한 정도’의 대답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12세의 孝武帝는 짧은 대화를 통해 ‘논리가 선달에 비견할 만한 것’이라는 평가를 얻어냈다. 孝武帝가 말한 ‘조급히 움직이면 추위를 이기고 고요함은 더위를 이기나 맑고 고요함은 천하의 정이 된다’는 『老子』¹⁶⁾에서 비롯된 구절로 孝武帝는 經典 인용을 넘어 어린나이에 이미 老子思想의 도리를 깨우쳐 삶에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에 열거한 典故를 운용하는 경우 외에 경전 탐독으로 남다른 호기심을 갖고 학문탐구에 열의를 갖고 매진하는 모습의 기록이 있다.

衛玠가 어렸을 때 樂令(樂廣)에게 꿈에 대해서 물었더니, 樂令이 대답하길 : “그것은 ‘생각’이다.” 라고 했다. 衛玠가 말하길 : “육체와 정신이 결합되어 있지 않을 때 꿈을 꾸는데 어찌하여 그것이 ‘생각’이란 말입니까?” 라고 하자, 악령이 말하길 : “‘원인’이 있기 때문이지. 수레를 타고 쥐 구멍으로 들어간단든지 절구질을 하고 나서 쇠 절구를 씹어 먹는다든지 하는 꿈을 이제껏 한 번도 꾸지 않았다는 것은 모두 ‘생각’도 없고 ‘원인’도 없었기 때문이지.”라고 했다.¹⁷⁾ 衛玠는 며칠 동안 ‘원

15) 夙慧, 第6條.

16) 『老子』: ‘躁勝寒, 靜勝熱清淨爲天下正.’

17) 『周禮』: 「春官·占夢」六夢이라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正夢으로 아무런 느낌도 없이 편안

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마침내 병이 들고 말았다. 樂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일부러 수레를 타고 가서 衛玠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었더니, 衛玠의 병에 금세 차도가 있었다. 樂令이 감탄하여 말하길 : “이 아이의 가슴 속에는 틀림없이 불치의 병이 없을 것이로다!” 라고 했다. (衛玠總角時問樂令“夢”, 樂云是“想”. 衛曰: “形神所不接而夢, 豈是想邪?” 樂云: “因也. 未嘗夢乘車入鼠穴. 擣齏噉鐵杵; 皆無想無因故也.” 衛思“因”經日不得, 遂成病. 樂聞, 故命駕爲剖析之. 衛卽小差. 樂歎曰: “此兒胸中, 當必無膏肓之疾!”)¹⁸⁾

衛玠의 의문은『周禮』「春官·占夢」의 六夢에 대한 해설에서 발로하는데 衛玠의 질문에 樂令은 ‘생각’이라는 것은 사몽이고 ‘원인’이라는 것은 아마도 정몽인 것 같다고 알려주어 고민을 해결해 준다. 그러나 衛玠의 호기심은 그치지 않고 또 그는 해결되지 않으면 병이 날 정도의 향학열을 갖고 있다. 이는 인재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위에서처럼 樂令과 같은 東晉의 성인은 호기심을 갈망하는 아이에게 친히 가르침을 주고 그로부터 희열을 느끼는데 이로부터 당시 학문장려의 분위기와 재목을 희구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다.¹⁹⁾

王戎이 7살 때 일찍이 여러 아이들과 함께 놀다가 길 옆 오얏나무를 보았는데, 열매가 많아 가지가 꺾어질 정도였다. 아이들은 다투어 달려가 그것을 따지만, 왕용만은 움직이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왕용이 대답하길 : “나무가 길옆에 있는데도 열매가 많이 달려 있으니 이는 틀림없이 쓴 오얏일 것입니다”라고 했다. 따서 맛을 보았더니 과연 그러했다. (王戎七歲, 嘗與諸小兒遊, 看道邊李樹多子·折枝: 諸兒競走取之, 唯戎不動. 人間之, 答曰: “樹在道邊而多子, 此必苦李.” 取之信然.)²⁰⁾

하게 꾸는 꿈을 말하고, 둘째는 噩夢으로 깜짝 놀라서 꾸는 꿈을 말하고, 셋째는 思夢으로 깨어 있을 때 생각했던 것을 꾸는 꿈을 말하고, 넷째는 寤夢으로 깨어 있을 때 말했던 것을 꾸는 꿈을 말하고, 다섯째는 喜夢으로 즐거워서 꾸는 꿈을 말하고, 여섯째는 懼夢으로 두려워서 꾸는 꿈을 말한다. “일월성신으로 여섯 가지 꿈의 길흉을 점치는데, 정몽·악몽·사몽·오몽·희몽·구몽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

18) 文學, 第14條.

19) 衛玠의 재능에 대해서는 賞譽篇 第45條와 衛玠別傳에는 王平子(王澄)는 세상을 뛰어넘는 걸출한 재능을 지니고 있어서 ‘남에게’ 감복하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때면 衛玠의 말을 들으면 곧 탄식하면서 즐도하곤 했다. 는 고사가 전해진다. 「衛玠別傳」王平子邁世有俊才, 先言平子聞玠之語議, 當復絕倒..

20) 雅量, 第4條.

앞의 경우에서 보듯 동년배들과 어울려 노는 가운데도 지혜가 있는 小賢은 사물을 대하는 태도가 남다르다. 王戎의 판단과 추리는 稚幼함이 남아있는 다른 아동 속에서 발휘되었고 결과 또한 그의 추리에 부합 되어 단연 돋보인다. 『名士傳』의 기록에 의하면 王戎은 이 일로 인해 어려서부터 신동이라는 칭송을 받았으며²¹⁾ 王戎은 중국에 기대에 부합되는 성인으로서 성장해 어른이 될 때까지의 행적이 『世說新語』 총 서른여섯 편에 그 과정이 전해진다.²²⁾ 이는 훌륭하게 될 인물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탁월함 갖고 있었다는 것의 반증이다.

다음의 고사는 어른을 상대하는데 있어 지혜를 발휘에 곤궁함에 빠지지 않고 목숨까지 보존한 아이에 관련된 고사이다.

王祥은 계모 朱夫人²³⁾을 매우 정성들여 섬겼다. 집에 오얏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열매가 아주 탐스러웠다. 계모는 항상 王祥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했다. 때때로 비바람이 갑자기 몰아치면 왕상은 나무를 끌어안고 울었다. 王祥이 한 번은 별실에서 자고 있었는데 계모가 어둠을 틈타 와서 그를 베어 죽이려 했다. 마침 王祥이 소변을 보러 간 터라 헛수고로 이불만 베고 말았다. 王祥은 돌아 와서 계모가 자기를 못 죽인 것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서는 계모 앞에 무릎 꿇고서 죽음을 청했다. 계모가 이에 감동하여 잘못을 깨닫고 자기 자식처럼 왕상을 사랑하게 되었다. (王祥事後母朱夫人甚謹。家有一李樹，結子殊好，母恒使守之。時風雨忽至，祥抱樹而泣。祥嘗在別牀眠，母自往闔斫之。值祥私起，空斫得被。既還，知母憾之不已，因跪前請死。母於是感悟，愛之如己子。)²⁴⁾²⁵⁾

王祥은 계모가 자기를 죽이려 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계모에게 죽음을

21) 「名士傳曰」：「戎由是幼有神理之稱也..」
 22) 德行 16·17·19·20·21, 言語 23, 雅良 4·5·6, 賞譽 5·6·10·13·14·16·22·24·29, 品藻 6, 容止 6·11·15, 傷逝 2·4, 任誕 1·8·14·32, 簡傲 2, 排調 4, 儉嗇 2·3·4·5, 縱橫 4, 惑溺 6. 에 각각 王戎의 고사가 실려 있다.
 23) 『王祥世家』：“왕상의 아버지 王融은 高平의 薛氏를 아내로 맞아 왕상을 낳았으며, 廬江의 朱氏를 후처로 삼아 王覽을 낳았다.”(祥父融，娶高平薛氏，生祥。繼室以廬江朱氏生覽。)
 24) 德行, 第14條.
 25) 같은 고사가 蕭廣濟 『孝子傳』에도 전해지는데 보면 왕상의 계모가 있는 뜰 안에 오얏나무가 있었는데,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계모는 왕상에게 낮에는 새가 쪼아 먹는 것을 살펴보고 밤에는 쥐를 쫓게 했다. 하루 밤은 비바람이 크게 몰아 치자 왕상은 새벽까지 나무를 끌어안고 울었는데, 계모가 이를 보고 측은해 하였다.”(祥後母庭中有李，始結子，使祥晝視鳥雀，夜則趨鼠。一夜，風雨大至，祥抱泣至曉，母見之惻然。)

을 청하는 태도를 취해 중국에는 계모의 악한 마음을 굴복시키고 말았다. 王祥의 태도는 후대 사람들에게 까지 추앙받게 되어 虞預 『晉書』에 ‘王祥은 계모를 섬긴다’라고 늙게까지 벼슬을 하지 않다가, 나이 육십이 되어 가서야 刺史 呂虔이 招文을 내려 別駕가 되었다.’ 당시 사람들이 노래하여 이르길 : “海沂가 평안한 것은 왕상의 덕택이며, 나라가 황폐해 지지 않은 것은 별가의 공이로세²⁶⁾.” 라는 이야기로 전한다. 『晉陽秋』²⁷⁾와 『孝子』²⁸⁾의 기록을 근거해도 王祥의 효심은 남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知機는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 뿐 아니라 儒敎의 禮를 지키는 아동의 모습을 통해 당시 가정교육에서부터 漢代의 禮를 계승하여 敎育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지기로서 목숨은 보존한 일화로는 王右軍과 관련된 고사가 假譎편에도 전한다.²⁹⁾

이 밖에도 『世說新語』는 기지와 지혜로 민첩하게 상황에 대처하는 아동의 여러

26) 『晉書』「王祥傳」：“海沂之康，寔賴王祥。邦國不空，別駕之功。”
 27) 『晉陽秋』의 기록을 보면 “계모는 자주 왕상을 무고하고 매번 무리한 일로 왕상을 부렸다. 그럴 때마다 이복동생인 왕람이 왕상과 함께 일을 했으며, 또한 왕상의 처를 심하게 부리면 왕람의 처도 역시 달려가 함께 일하곤 하여 계모가 그것을 걱정하였다. 한번은 몹시 추워 물이 얼었는데 계모가 산 잉어를 먹고 싶어 했다. 왕상은 옷을 벗고 얼음을 깨고 들어가 잉어를 잡으려 했는데, 그때 마침 얼음이 약간 갈라진 곳에서 잉어가 튀어 나왔다.”(晉陽秋曰：「後母數譖祥，屢以非理使祥，弟覽輒與祥俱。又虐使祥婦，覽妻亦趨而共之。母患，方盛寒冰凍，母欲生魚，祥解衣將剖冰求之，會有處冰小解，魚出。」)
 28) 『孝子』를 보면 “王祥의 계모가 문득 黃雀의 구운 고기를 먹고 싶어 했다. 왕상은 갑자기 얻기에는 어려운 일이라 고심하고 있었는데, 문득 수십 마리의 黃雀이 그의 장막으로 날아 들어 왔다. 그 외에도 계모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몹소 뛰어들어 다니면서 구해 오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그의 지극한 정성이 이와 같았다.”(蕭廣濟孝子傳曰：祥後母忽欲黃雀炙，祥念難卒致，須臾，有數十黃雀飛入其幕。母之所須，必自奔走，無不得焉。其誠至如此。)
 29) 假譎, 第7條. 王右軍이 열 살 안 되었을 때 대장군은 그를 매우 사랑하여 자신의 휘장 안에서 자게 했다 한 번은 대장군이 먼저 휘장에서 나왔는데 王右軍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잠시 후에 전봉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몰리치고 대장군과 일을 논의 했는데 王右軍이 휘장 안에 있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고서 바로 만여의 계획을 언급했다. 王右軍은 깨어나서 듣고는 살아날 길이 없다고 판단되자 곧바로 손가락을 목구멍에 도해 넣어 도해서 얼굴과 이부 자리를 더럽힌 뒤 거짓으로 깊이 잠든 척 했다. 왕돈은 일을 의논하던 도중에 비로소 王右軍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 생각나서 전봉과 함께 크게 놀라 말하길 : “제가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휘장을 열어 제치고 보았더니 또한 오물과 침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으므로 대장군은 그가 정말로 깊이 잠들어 있었다고 믿었다. 그래서 王右軍은 온전할 수 있었다. 당시 사람들은 그의 지혜로움을 칭찬했다. 王右軍年減十歲時，大將軍甚愛之，恒置帳中眠。大將軍嘗先出，右軍猶未起；須臾，錢鳳入，屏人論事，都忘右軍在帳中，便言逆節之謀。右軍覺，既聞所論，知無活理，乃剔吐汚頭面被褥，詐熟眠。敦論事造半，方意右軍未起，相與大驚曰：“不得不除之！”及開帳，乃見吐唾從橫，信其實熟眠，於是得全。于時稱其有智。

모습이 전해지고 있는데 주목 할 것은 『世說新語』은 고답적 지식을 따르거나 끈고 일률적 아동의모습만 관찰하는 것이 아닌, 창의적이고 짓곳은 행동에서도 俊邁함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의 여러 예를 통해 남다른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아동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何晏은 7살 때 총명하고 지혜롭기가 신과 같았는데 魏武帝가 그를 특별히 사랑하여 何晏이 모친을 따라 궁중에 있었으므로 자신의 양자로 삼으려 했다. 何晏은 그래서 땅에 사각형을 그어 놓고 스스로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대답하길 :“이곳은 何씨의 거처입니다.”라고 했다. 魏武帝는 그 사실을 알고 즉시 그를 집으로 보내 주었다. (何晏七歲, 明惠若神, 魏武奇愛之:因晏在宮內, 欲以爲子. 晏乃畫地令方, 自處其中. 人問其故? 答曰:“何氏之廬也. 魏武知之, 卽遣還. 夙慧.)³⁰⁾

何晏의 秀逸함은 『魏氏春秋』에도 전하는데 : 何晏은 젊어서부터 남다른 재주를 지녔으며 『易經』과 『老子』를 담론하는 데 뛰어났다.³¹⁾고 한다. 어리시절 왕이 애정을 갖고 양자 삼으려 했던 것은 가담 역시 何晏의 남다른 지혜로움에서 비롯한다. 더욱이 何晏은 부모의 섬김을 저버리지 않는 禮까지 겸비하고 있는 것 왕의 제안에 직언, 타협, 건의 등을 하지 않고도 知機로 대처 하는 것은 고사에서 밝혔듯 ‘明惠若神’임을 증명하고 있다.

鍾毓·鍾會 형제는 어려서부터 훌륭한 명성이 있었다. 13살 때 魏文帝(曹丕)가 이를 듣고서 그의 아버지 鍾繇에게 이르길 : “두 아들을 오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여, 이에 문제가 친견하게 되었다. 鍾毓의 얼굴에 땀이 흐르자 문제가 말하길 : “그대의 얼굴엔 어찌하여 땀이 흐르는가?” 라고 하자, 鍾毓이 대답하길 : “두렵고 황공하여 땀이 국물처럼 흐릅니다.”라고 했다. 다시 鍾會에게 묻길 : “그대는 어찌하여 땀을 흘리지 않는가?” 라고 하자, 대답하길 : “두렵고 떨려서 땀이 감히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 (鍾毓·鍾會少有令譽, 年十三, 魏文帝聞之, 語其父鍾繇曰: “可令二子來?” 於是敕見. 毓面有汗, 帝曰: “卿面何以汗?” 毓對曰: “戰戰惶惶, 汗出如漿.” 復問會: “卿何以不汗?” 對曰: “戰戰慄慄, 汗不得出.”)³²⁾

30) 夙慧, 第2條.

31) 『魏氏春秋』曰: “晏少有異才, 善談易, 老.”

曹丕의 가혹한 정치체제는 『世說』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는데 이를 대하는 鍾毓·鍾會 형제의 태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知機만은 難兄難弟 할 정도로 빼어나다.³³⁾ 14세에 散騎侍郎에 오를 정도로 비범했던 鍾毓은 曹丕의 엄격한 법치체제 앞에서 자신도 어느새 새벽이슬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왕의 猛政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둘째 鍾會는 자신의 진심을 오히려 왕에 대한 敬懼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은폐하여 상황을 모면한다. 이들은 각자 ‘신중함’과 ‘대범함’ 개성을 고수하며 기민함을 표현한다.

이 밖에도 夙慧 第4條³⁴⁾와 夙慧 第5條³⁵⁾의 고사를 통해 어른의 담론을 이해할 줄 아는 아동과 과학적 사고를 통해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아동 등에 대한 일화도 살펴볼 수 있는데 아동들이 이와 같이 독창적이고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었

32) 言語篇, 第11條.

33) 맏아들 鍾毓은 14살에 散騎侍郎이 되었다. 그는 기민하고 담소하는 것에 아버지의 품모가 있었다. 벼슬은 車騎將軍에 이르렀다. 둘째, 종회는 자가 元常이다. 집은 가난했으나 학문을 좋아 하여 『周易』과 『老子』의訓을 지었다고 한다. 벼슬은 大理想국을 역임하고 太傅로 전임되었다. 또 鍾毓, 鍾會 형제의 비범함에 대한 고사는 言語篇 第4條, 第5條, 第12條에도 실려 있다. 毓傳云: ‘年十四爲散騎侍郎, 機捷談笑有父風. 太和初, 蜀相諸葛亮禰山, 明帝欲親西征, 毓上疏’ 魏志曰: ‘會字士季, 繇少子也. 敏惠夙成, 中護軍蔣濟著論, 謂觀其眸子, 足以知人. 會年五歲, 繇遣見濟.’

34) 夙慧, 第4條. 司空과 顧和가 당시 명사들과 함께 淸談을 나누고 있을 때 張玄之와 顧敷는 각각 외손자와 친손자로서 모두 7살이었는데 평상 옆에서 놀고 있었다. 그때 할아버지와 손님들이 나누는 청담을 들었지만 서로 관심이 없는 듯 한 표정 있었다. 그러나 밤에 등불아래에서 두 아이가 함께 손님과 주인이 청담을 흉내 내며 서술했는데 전혀 빠뜨림이 없었다. 고공이 자리를 넘어가 그들의 귀를 잡아당기며 말하길 : “쇠락한 가문에서 다시 이런 보내가 생겨날 줄은 생각지도 못 했도다” 하고 말했다. 司空顧和與時賢淸言, 張玄之·顧敷是中外孫, 年七歲, 在牀邊戲. 于時聞語, 神情如不相屬; 暝於燈下, 二兒共敍客主之言, 都無遺失. 顧公越席而提其耳曰: 不意衰宗, 復生此寶!

35) 夙慧, 第5條. 韓康伯이 몇 살 안 되었을 때 집이 너무나 가난하여 대만에 이르렀는데도 저고리만 입고 있었다. 모친 殷夫人이 직접 그것을 만들어 직접강백에게 다리미를 들고 있으라 하면서 강백에게 말하길 : “잠시 저고리를 입고 있으면 나중에 겹바지를 만들어 주마”라고 하자, 아이가 말하길 : “이거면 충분하니 겹바지는 필요 없습니다.”라고 했다. 모친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대답하길 : “불이 다리미 속에 있어서 자루까지 뜨겁습니다. 지금 이미 저고리를 입고 있으니 아랫도리도 당연히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모친은 그를 매우 기특하게 여기며 나라의 중용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韓康伯數歲, 家酷貧, 至大寒, 止得, 母殷夫人自成之, 令康伯捉斗; 謂康伯曰: “且箸襦, 尋作複褌兒云, 已足, 不復須褌. 母問其故?” 答曰: “火在斗中而柄熱, 今既箸, 下亦當煖, 故不須耳.” 母甚異之, 知爲國器.

던 것은 일면 당시 자유로운 생각을 인정하고 창의와 개성을 중시했던 사회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2.2.2 才·敏·辨

『世說新語』에는 아동의 입을 통해 나오는 ‘清談玄理’와 ‘應口輒代’하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묘사되어 있다. 魏晉시기 사회풍조의 하나로 자리 매김한 清談은 사대부 계층에서 만연되어 급기야 아이들에게까지 파급되었으며 아이들은 성인과의 담론에서도 한 치의 물러섬이 없어 대화를 이끌어 그 흥미를 더한다. 清談에서는 ‘민첩한 사리판단’, ‘해박한 지식’, ‘상황에 대한 개성적 해석’, ‘뛰어난 입담’ 등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데 이 가운데 가장 큰 매력이라 함은 위에 열거한 것을 바탕으로 한 지식과 재담의 경쟁을 통해 승패가 가려진다는 것이다. 『世說新語』에서는 아이들이 어른과 철학적 담의를 신고 있는데 아이들의 清議는 어른들의 질문 등에 ‘辭令’, ‘應口’, ‘酬答’을 통해 드러난다. 다음은 言語편에 실린 고사로 사회 분위기를 清談식의 언어로 풍자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中朝(西晉)에서 어떤 아이의 아버지가 병이 났다. 그 아이가 약을 얻으러 나갔는데 집 주인이 병명을 묻자 말하길: “학질에 걸렸어요.” 라고 했다. 다시 주인이 말하길: “너의 아버지는 밝은 덕을 지닌 군자인데 어찌하여 학질 같은 병에 걸렸을까?” 라고 하자, 아이가 대답하길: “군자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학(瘡: 瘡)이라고 하지요.”라고 했다. (中朝有小兒父病, 行乞藥: 主人問病, 曰: “患瘡也.” 主人曰: “尊侯明德君子, 何以病瘡?” 答曰: “來病君子, 所以爲瘡耳.”)³⁶⁾

주지하듯이 西晉은 분열, 혼란의 격정기였고 위 고사에서 ‘어떤 아이의 아버지’로 묘사된 君子는 西晉당시의 일반적인 君子를 대표한다. 즉, 병에 걸린 君子이다. 그들은 보편적 사람들의 인식에서처럼 밝은 덕을 지닌 사람이 아닌 세태에 찌들고 시달려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이다. 이 같은 세태를 불만하고 있는 주인은 어떻게

36) 言語, 第27條.

훌륭한 사람이 학질 따위의 병에 걸리느냐는 조소를 보냈다. 이에 대해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는 배움(學)을 중시하는 君子라, 학(瘡: 瘡)질에 걸렸다고 하였다. 아이로 하여금 제 아버지를 깎아 내리려던 사람은 아이의 同音활용을 통한 민첩한 대응으로 상황을 전세시킨다. 병은 당시의 병폐적 사회현상이라는 데 주목된다. 慧眼을 갖춘 아이는 아이의 아버지는 병든 사회를 살고 있는 유약한 인물이며, 약방주인은 사회를 비판하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으나, 이 문제를 직시하고 이들보다 현명한 아동이 있다는 것을 통해 미래를 낙관적으로 기대 할 수 있다.

다음의 고사 역시 同音현상을 활용한 청담인데 아이의 담론이 성인의 언사보다 우위하고 있음을 잘 묘사하고 있다.

梁나라 楊氏의 아들이 9살 때 매우 총명했다. 孔君平(孔坦)³⁷⁾이 그의 아버지를 만나러 갔는데 아버지가 집에 없자 아이를 불러 나오게 했다. 과일을 차렸는데 과일 가운데 楊梅가 있었다. 君平이 그것을 가리키며 아이에게 말하길: “이것은 너희 집안의 과일 이구나”라고 하자, 아이가 곧장 대답하길: “孔雀이 孔夫子의 家禽이라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 데요”라고 했다. (梁國楊氏子九歲, 甚聰惠: 孔君平詣其父, 父不在, 乃呼兒出, 爲設果. 果有楊梅, 孔指以示兒曰: “此是君家果?” 兒應聲答曰: “未聞孔雀是夫子家禽!”)³⁸⁾

清談은 심각한 論戰과 토론 보다 言語遊戲나 말장난을 통해 그 매력이 더 드러나기도 한다. 위의 고사가 바로 그 예인데 孔君平은 楊씨집에서 同音 활용하여 楊梅를 집안의 과일로 추켜세웠다. 아이는 楊氏의 孔雀과 관련된 이야기는 논지에 맞지 않으므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도리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반박한다. 이는 당시 파벌 짓고 무리화 하여 쟁권에만 힘쓰는 기성사회에 대한 비판이며 질책이다. 孔君平 같이 합당한 이치를 따르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직언하는 태도는 향후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게 한다. 『世說新語』에서는 이와 같은 대화도 세밀하게 관찰하여 놓치지 않고 기록하여 아동에 대한 관심을 고

37) 『晉書』의 기록에도 孔君平은 언변이 뛰어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 孔坦의 자는 君平으로 會稽 山陰 사람이며 『春秋』에 정통했으며 문장과 변론에 뛰어났다고 한다. 晉書曰: ‘孔坦字君平, 會稽山陰人. 善春秋, 有文辯.’

38) 言語, 第43條.

취하고 있다.

孔文舉(孔融)가 10살 때 아버지를 따라 洛陽에 갔었는데, 당시 李元禮(李膺)는 명성이 자자한 자로 司隸校尉였다. 그래서 그 집 문을 드나드는 자는 모두 재주가 뛰어나고 고결한 선비들이었으며 내외 친척들만이 통교했다. 孔文舉는 문에 이르러 문지기에게 이를 길: “나는 李府君과 친척이오.” 하고 통과하여 李元禮 앞에 앉았다. 李元禮가 묻길: “자네와 내가 어떤 친척간인가?” 라고 하자, 대답하길: “옛날 저의 선조이신 仲尼께서 당신의 선조이신 伯陽³⁹⁾을 스승으로 존대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저와 당신이 세세토록 친교를 맺은 증거입니다.” 라고 했다. 그러자 원례와 빈객들이 모두 그를 기특하게 여겼다. 太中大夫인 陳韙가 나중에 들어오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었더니 진위가 말하길: “어릴 때 똑똑하다고 해서 커서도 반드시 훌륭하리란 법은 없지.” 라고 했다. 이에 문기가 대꾸하길: “그렇다면 당신은 어렸을 때 틀림없이 똑똑했겠군요.” 라고 하자, 진위가 크게 당황해 했다. (孔文舉年十歲, 隨父到洛: 時李元禮有盛名, 爲司隸校尉: 詣門者皆僞雋才清稱, 及中表親戚乃通. 文舉至門, 謂吏曰: “我是李府君親.” 既通, 前坐. 元禮問曰: “君與僕有何親?” 對曰: “昔先君仲尼, 與君先人伯陽, 有師資之尊: 是僕與君奕世爲通好也.” 元禮及賓客莫不奇之. 太中大夫陳韙後至, 人以其語語之. 韙曰: “小時了了, 大未必佳!” 文舉曰: “想君小時必當了了!” 韙大踧踖).⁴⁰⁾

위의 기사에서 孔文舉의 지혜로움은 孔子와 老子的 관계 언급 에서 시작된다. 孔文舉는 자신이 명망 있는 李元禮와 세대를 걸쳐 깊은 연이 있는 관계임을 증명한다. 이어 陳韙가 등장하여 ‘小時了了, 大未必佳!’ 어릴 때 똑똑하다고 하여 커서도 반드시 똑똑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여 孔文舉에 대한 好評에 의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孔文舉는 이 판단구를 역 활용 한다. 즉 陳韙로 하여금 스스로 만든 전제에서 ‘小時了了’를 긍정하면 후자가 긍정되어 이미 ‘君’이 된 자신이 보잘 것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하고 이를 부인하려면 陳韙는 孔文舉의 ‘了了’함을 인정해야만 한다.⁴¹⁾ 孔

39) 伯陽: 老子的 자. 『史記』 「孔子世家」와 「老子列傳」에 공자가 노자에게 禮를 물은 고사가 나옴. 여기서는 그 일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듯하다.

40) 言語, 第3條.

41) 언어의 전이 현상에 대해 서양에서는 ‘언어의 轉移現狀에 대해 作家는 그가 의도한 M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 기능에 f(m)을 제시한다. 독자가 해야할 일은 반대의 기능 f-1을 발휘해서 f-1(f(m)) 즉 M이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리하여 아이러니의 경우 작가는 그가 뜻하는 것과는 正反的으로 말한다. 일단 독자가 작가에 의하여 의도된

文學는 어떠한 반론도 제시한지 않고 陳韙를 自繩自縛시켜 담론을 이끌었다⁴²⁾. 그러나 실제로 孔融別傳』에 의거하면 孔融은 4살 때 형과 함께 배를 먹었는데 언제나 작은 것을 가져가자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물었더니, 대답하길: “어린 사람이 작은 것을 먹는 것이 당연하지요.”⁴³⁾라고 했다. 이와 같이 孔文舉는 누구보다도 禮를 이는 인물로 이를 토대로 孔文舉의 성품과 지기를 알 수 있다.

孔融이 체포되어 조정의 안팎이 모두 두려워했다. 당시 孔融의 아들은 큰 아이가 9살이었고 작은 아이가 8살이었는데 두 아이는 못 치기 놀이를 하면서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다. 孔融이 使者에게 말하길: “죄가 내 몸에서 그쳤으면 좋겠소. 두 아들은 온전할 수 있겠소?” 라고 하자, 아들이 천천히 다가오면서 말하길: “아버님께서는 잃어진 새집 아래서 깨지지 않고 온전한 알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라고 했다. 얼마 후에 이들도 또한 잡혀 들어갔다. (孔融被收, 中外惶怖. 時融兒大者九歲, 小者八歲: 二兒故琢釘戲, 了無遽容. 融謂使者曰: “冀罪止於身, 二兒可得全不?” 兒徐進曰: “大人豈見覆巢之下, 復有完卵乎?” 尋亦收之.)

위에서 孔融의 두 아들은 아직 ‘琢釘戲’을 하는 전형적 아동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와 같이 ‘口尚乳臭’한 아동에게 보호자의 존재는 절대적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체포 되가는 중에도 못치기 놀이를 하고 있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두 아들 이미 마음속으로 아버지의 향후 행로와 운명을 같이 할 것을 준비해 놓고 평정을 찾은 상태로 보인다. 그들이 생각하는 바는 오히려 어른보다 깊고 대범함을 알 수 있다.⁴⁴⁾

유추나 직유의 입장을 조사하였다면, 그는 작가가 걸었던 길을 되밟을 수 있게 되어 원래의 문학적 의미에 도달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Max Black, 권두환역 『言語科學이란 무엇인가?』 267쪽, 문학과 지성사, 1977 위에서 공문거가 이용한 것은 언어의 전이 현상을 이용한 것이다.

42) 이와 같은 고사가 融別傳에도 전한다. 「融別傳曰」: 融四歲, 與兄食梨, 輒引小者. 人問其故? 答曰: “小兒, 法當取小者.” 年十歲, 隨父詣京師. 河南尹李膺有重名, 融欲觀其爲人, 遂造之. 膺問: “高明父祖, 嘗與僕周旋乎?” 融曰: “然. 先君孔子與君先人李老君, 同德比義, 而相師友. 則融與君累世通家也.” 衆坐莫不歎息, 僉曰: “異童子也!” 太中大夫陳韙後至, 同坐以告. 韙曰: “人小時了了者, 長大未必能奇.” 融應聲曰: “卽如所言, 君之幼時, 豈實慧乎?” 膺大笑, 顧謂融曰: “長大必爲偉器.”

43) 「融別傳曰」: “融四歲, 與兄食梨, 輒引小者. 人問其故?” 答曰: “小兒, 法當取小者.”

44) 이에 대해 裴松之: 『世語』에서 “공융의 아들이 피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모두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은 그런대로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魏氏春秋』의 孫盛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8살밖에 안된 아이가 禍患을 예측할 수 있을 정

簡文帝(司馬昱)가 죽자 孝武帝(司馬曜)가 10여 살의 나이로 즉위했는데, 저늬이 다 되도록 哭禮를 행하지 않았다. 이에 좌우 신하들이 常禮에 따라 곡례를 행함이 마땅하다고 주청하자, 효무제가 말하길 : “슬픔이 지극해야 곡하는 법이오. 무슨 상례가 있단 말이오?”라고 했다.(簡文崩, 孝武年十餘歲立, 至暝不臨, 左右啓: “依常應臨.” 帝曰: “哀至則哭, 何常之有!”)⁴⁵⁾

喪중 깊은 슬픔에 잠기는 것을 지극한 孝로 간주하고 절차를 까다롭게 지켜 행하는 것을 禮를 다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 선진 시기 중국의 喪禮이다. 그러나 앞의 고사를 통해 진실과 자연스러움이 추구되는 魏晉시기는 오히려 정서를 솔직하게 표하고 형식에 구속되지 않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孝武帝의 솔직한 행동은 아동의 생각과 언어를 무시하지 않고 수용하고 있는 시대를 반영하며 앞에서 ‘依常應臨’ 와 ‘何常之有’은 극명하게 대립되며 전범에 따르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王子敬(王獻之)이 몇 살 안 되었을 때, 한번은 門生들이 樗蒲 놀이 하는 것을 구경하다가 이미 승부가 나 있는 것을 보고 말하길 : “남쪽 노래는 상대가 되지 못하겠네요”라고 했다. 문생들이 그를 어린 아이라고 깔보고 말하길 : “이 도령은 또한 대롱으로 표범을 살펴보는지라 때때로 “표범 가죽 무늬의” 한 반점만 보는구먼!”라고 하자, 왕자경이 눈을 부라리며 말하길 : “멀리는 荀奉倩(荀粲)에게 부끄럽고 가까이 는 劉眞長(劉惔)에게 부끄럽소!”라고 하고는 마침내 옷을 털면서 가버렸다. (王子敬數歲時, 嘗看諸門生樗蒲: 見有勝負, 因曰: “南風不競.” 門生輩輕其小兒, 迺曰: “此郎亦管中窺豹⁴⁶⁾, 時見一斑.”; 子敬瞋目曰: “遠慙荀奉倩, 近愧劉眞長!” 遂拂衣而去.)⁴⁷⁾

도로 총명함이 대단하고 탁월하게 뛰어났다면 그의 걱정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또한 진실로 어른들보다 뛰어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어찌 아버지가 잡혀가는 것을 보고서 안색조차 바꾸지 않고 바둑을 두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태연히 한가롭게 즐길 수가 있었는가? 옛날 申生은 죽게 되었을 적에 말할 때마다 아버지를 잊지 않아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해서 아버지를 그리는 정마저 버리지 않았다. 아버지가 편히 계시는 때에도 오히려 이와 같았거늘 하물며 아버지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임에랴! 그런데도 손성은 이것을 미담으로 여겼으니 바로 남의 자식을 해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대개 특이한 일을 지나치게 좋아하다가 말이 도리를 해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라 하였다고한다. 孫盛之言, 誠所未嘗. 八歲小兒, 能懸了禍患, 聰明特達, 卓然既遠, 則其憂樂之情, 固亦有過成人矣. 安有見父被執, 而無變容, 奕棋不起, 若在暇豫者乎? 昔申生就命, 言不忘父, 不以己之將死而廢念父之情也. 父安尚猶若茲, 而況顯市哉! 盛以此爲美談, 無乃賊夫人之子與? 蓋由好奇情多, 而不知言之傷理也.

45) 德行, 第89條.

46) 管中窺豹의 원문은 “管中窺豹.” 부분적인 관찰만으로 전체를 추측한다는 뜻으로 『莊子·秋

王子敬은 어려서부터 談論에 뛰어난 인물로 전해지는데 『荀粲別傳』에 의하면 : ‘荀粲은 현원함을 논하는 데 능하여 답론에 뛰어난 자들도 그를 꺾을 수 없었다.’ 고하며 ‘劉惔은 老莊을 좋아했으며 簡文帝의 談客으로 활약하여 人望이 높은 사람으로 전해진다.’ 고 한다. 앞의 고사는 이를 잘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王子敬은 문생들이 어리다고 얕보며 자신을 ‘郎’이라 칭한 것에 불쾌한 마음이 일었으나 이에 직접적인 표현으로 대응하는 대신 심중의 우상을 꺼내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한다. 王子敬이 荀奉倩과 劉眞長에게 부끄럽다고 한 것은 자신이 상대할 사람은 이들과 같은 정도의 인물이며 門生들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대상임을 나타내어 상대의 조롱에 현명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謝仁祖(謝尚)가 8살 때 謝豫章(謝鯤)이 손님을 전송했는데, 이때 사인조의 언변은 이미 신통하여 자연히 상류 인물들에 참여하게 되었다. 여러 사람이 모두 함께 탄복하여 말하길 : “나이는 어리지만 좌중의 顏回로다!”라고 하자, 사인조가 말하길 : “좌중에 尼父(孔子)가 없으니 어떻게 안회를 알아보리오?”라고 했다. (謝仁祖年八歲, 謝豫章將送客, 爾時語已神悟, 自參上流, 諸人咸共歎之曰: “年少一坐之顏回!” 仁祖曰: “坐無尼父, 焉別顏回?”)⁴⁸⁾

주지하듯이 顏回는 孔子의 수제자로서 孔子 德行科의 필두로 꼽히는 제1의 현자이다. 孔子는 仁者를 인정한 일이 없었는데, 顏回만은 仁子로 인정받은 유일한 사람이고 ‘제자 중에서 학문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回뿐이다’ 라고 칭찬한 유일한 제자이기도하다. 비록 謝仁祖는 어른들의 談論에 끼고 顏回와 같다는 칭찬까지 받았으나 칭찬에 附和하지 않는다. 謝仁祖는 어른들의 談論에서 크게 감탄하지 못했음을 유추 할 수 있는데 학식이 8세 아이를 평가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며 당시 孔子와 같이 존경한 만한 인물이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다. 이로서 자신에 대한 평가도 달갑게 여기지 않으며 스스로의 학식은 돌이켜 보지 않고 쉽게 남을 평가하는 어른들의 오만함과 학업은 게을리 하며 才談

水』의 “是直用管闚天”에서 典故한 것이다.

47) 方正, 第59條.

48) 言語, 第46條.

에만 열중하는 자세를 풍자한다.

徐孺子가 아홉 살 때 달빛 아래서 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길 : “만약 달 속에 다른 물건이 없다면 틀림없이 더욱 밝아지겠지?”라고 하자, 徐孺子가 말하길 : “그렇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사람 눈 속에 동자가 있어서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밝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라고 했다. (徐孺子年九歲, 嘗月下戲, 人語之曰: “若令月中無物, 當極明邪!” 徐曰: “不然. 譬如人眼中有瞳子, 無此必不明.”)49)

책을 읽고 익혀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맹목적 추종보다는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력을 키우는 것이 학업 하는 진정한 목적이다. 徐孺子와 어떤 사람이 한 이야기는 『五經通義』에 달 속에 토끼와 두꺼비가 있다는 것과 『後漢書』 「天文志」 ‘羿가 西王母에게 불사약을 청했는데 姮娥가 이를 훔쳐가지고 달로 도망가서 두꺼비가 되었다50)는 전설 에서 발로한다. 물론 현대적 관점에서 본다면 『五經通義』의 고사나 姮娥의 이야기는 흥미는 있으나 과학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안을 두어 할 것은 徐孺子가 비과학적 사실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았거나 사실을 유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닌, 이를 논리의 제재로 삼고 달의 고사에 눈동자를 비유한 것으로 어린 徐孺子의 언변의 精研함과 창신적 사고가 인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晉 明帝가 몇 살 안 됐을 때 부친 元帝의 무릎에 앉아 있었는데 장안에서 온 사람이 있기에 元帝가 낙양의 소식을 물어 보고는 주르륵 눈물을 흘렸다. 明帝가 묻길 : “어찌 하여 우십니까?”라고 하자, 元帝가 강남으로 건너오게 된 뜻을 그에게 자세히 알려주었다. 이어서 明帝에게 묻길 : “너는 장안과 태양 중에서 어느 쪽이 멀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대답하길 : “태양이 멎니다. 태양에서 온 사람이 있다는 소문은 듣지 못했으니,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라고 하자, 元帝는 기특하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신하들을 소집하여 연회를 베풀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며 다시 물었더니 明帝가 대답하길 : “태양이 가깝습니다.”라고 했다. 元帝가 실색하여

49) 言語, 第2條.

50) 『五經通義』의 : “달 속에 토끼와 두꺼비가 있는 것은 어째서 인가?”, “달이 음(陰)이기 때문이다. 두꺼비도 또한 음인데 토끼와 더불어 밝은 것은 음이 양(陽)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라는 구절과 또 『後漢書』 「天文志」 注에는 “羿가 西王母에게 불사약을 청했는데 姮娥가 이를 훔쳐가지고 달로 도망가서 두꺼비가 되었다.”고 전한다.

말하길 : “너는 어찌하여 한 말을 바꾸느냐?”라고 하자 대답하길 : “눈을 뜨면 태양은 보이지만 장안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다. (晉明帝數歲, 坐元帝膝上, 有人從長安來, 元帝問洛下消息, 潸然流涕. 明帝問何以致泣? 具以東渡意告之; 因問明帝: “汝意謂長安何如日遠?” 答曰: “日遠. 不聞人從日邊來, 居然可知.” 元帝異之. 明日集 臣宴會, 告以此意, 更重問之. 乃答曰: “日近.” 元帝失色, 曰: “爾何故異昨日之言邪?” 答曰: “舉目見日, 不見長安.”)51)

엄숙하고 진중한 데에서만 우수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앞의 고사에 나오는 明帝와 같이 장난기가 있고 재치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그 지혜로움이 충분히 발견 될 수 있는데 원론적으로 보면 明帝는 말을 바꾸고 아버지 元帝를 사람들 앞에서 난감하게 만들었으나 결론적으로는 아이다운 장난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논리와 재치가 俊異하여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世說新語』는 사고의 각성과 자유분방한 사상한 추구한 魏晉 시기 일화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明帝가 어려서 한 名言, ‘日近長安遠’은 현재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묘사한 단어로 많이 회자되고 는데 이처럼 아이의 略略한 말이 갖는 파장을 통해 영재아동의 준일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이 진작된다.

어떤 客이 陳季方(陳謏)에게 묻기를 : “그대의 부친이신 太丘(陳寔)께서는 어떠한 공덕이 있으시기에, 천하의 뛰어난 명성을 한 몸에 짊어지고 계십니까?”라고 하자, 季方이 말하길 : “저희 부친은 비유하자면 계수나무가 태산의 언덕에서 자라는 것과 같아서, 위로는 만 길이나 되는 높이가 있으며 아래로는 헤아릴 수 없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甘露가 적시어 주고 아래로는 깊은 연못이 운택하게 해주니, 이런 지경에 있게 되면 계수나무가 어떻게 태산의 높음과 연못의 깊음을 알겠습니까? 부친께서는 자기에게 공덕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십니다.”라고 하였다. (客有問陳季方: “足家君太丘, 有何功德, 而荷天下重名?” 季方曰: “吾家君譬如桂樹生泰山之阿, 上有萬仞之高, 下有不測之深: 上爲甘露所霑, 下爲淵泉所潤.”)52)

陳季方은 자신의 부친의 공덕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하였으나, 사실 헤아릴 수 없이 높은 지경임을 우회적으로 표현한다. 완곡한 표현으로 겸양의 예를 지켜 대

51) 夙慧, 第3條.

52) 言語, 第12條 에도 이와 유사한 고사가 실려 있는데 그것은 鍾毓 형제에 관한 것이다. 후시 이 고사가 와전된 것이 아닌가 한다.

답한 것이다. 또한 위로는 甘露가 적시어 주고 아래로는 깊은 연못이 운택하게 해 주고 있다며 비유가 뛰어나고 문학성이 짙은 표현을 써서 부친 太丘의 공덕은 하늘과 땅으로 그 감화를 부여받고 있다고 美麗하게 설명한다. 더욱이 부친은 자신은 공덕조차 안중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아버지의 고결한 품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아들이 갖는 경외심을 잘 드러내었다.

2.2.3 態度, 行動, 品性

『世說新語』는 魯迅의 말대로 ‘명사의 교과서’가 되기에 충분한 중고시대를 대표하는 소설로서 내용상 가르침과 지침이 되는 이야기가 많고 이런 모범적 사례를 많이 들고 있다. 또한 창작 당시부터 근본적으로 유가의 명분을 따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禮敎와 兒童들의 언행 등을 유교적 입장에서 관찰하고 儒敎적 행동거지와 품성 묘사한 고사를 많이 담고 있다.⁵³⁾ 본 절에서는 이 가운데 儒家적 예를 익힌 아이들의 언행과 행동을 높이 평가하여 기록한 고사를 살펴보겠다.

范宣이 여덟 살 때, 후원에서 채소를 뜯다가 잘못하여 손가락을 다쳐 영영 울었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아파서 그러느냐?”라고 하자, 범선이 대답하길: “아프기 때문이 아니라 ‘身體髮膚는 감히 毀傷해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范宣年八歲, 後園挑菜誤傷指, 大啼, 人問: “痛邪?” 答曰: “非爲痛也: 但身體髮膚, 不敢毀傷, 是以啼耳.”)⁵⁴⁾

范宣은 漢나라 范丹의 후손으로 열 살 때에 이미 『詩經』·『書經』을 외울 수 있었다고 한다. 위의 고사에서도 알 수 있는 范宣은 어렸을 때 손을 다쳤는데 몸가짐을 가다듬으면서 효를 생각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했다. 또 대화 중 『孝經·開宗明義章第一』 가운데 한 구절인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를 인용해 가르침

53) 從『世說新語』의 某些分篇中, 可以看出劉義慶編著此書時的傾向性, 如『德行』, 『政事』, 『方正』, 『雅量』等篇作者對其中的人與事大抵採取肯定的態度反而『任誕』, 『簡傲』, 『汰侈』, 『尤悔』, 『惑溺』等篇則對所寫人與事多持否定態度. 其他各篇雖然從題目中看不出明顯的態度, 但行文中仍有其傾向性. 大體來說明劉義慶對漢末一些名士, 都是歌頌或讚賞的, 對魏晉的清談家則有所肯定也有所否定. 『世說新語-中國文學大辭典』天津人民出版社 1348-1349쪽.

54) 德行, 第38條.

을 실천하는 자세를 보인다. 이를 통해 썬의 명문가에서 가정에서 부터 예를 교육하고 학문적 수양을 닦게 하여 덕망 있는 인물로 교육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⁵⁵⁾

다음의 고사는 효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시사하면서 아동들의 행동을 통해 예를 지키는 것과 현재 상황에 비추어 그 경계가 이미 모호할 때 모순을 야기하지 않는 민첩한 판단을 내려, 知機를 돋보이게 하는 경우가 있다.

孔文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놈은 6살이었고 작은 놈은 5살이었다. 낮에 아버지께서 주무시고 계실 때 작은 놈이 상에서 술을 훔쳐 먹었더니, 큰 아이가 말하길: “어찌하여 拜禮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자, 작은 아이가 대답하길: “훔쳐 마시는데 무슨 예를 행해야만 합니까?”라고 했다. (孔文學有二子: 大者六歲, 小者五歲. 晝日父眠, 小者牀頭盜酒飲之. 大兒謂曰: “何以不拜?” 答曰: “偷, 那得行禮!”)⁵⁶⁾

孔文學는 孔子의 24세손으로 그의 어린 시절 才氣 역시 『世說』에 상당히 많이 기록된다. 그의 아들들 역시 孔家의 자손답게 6세 아이가 예를 갖추어야 됨을 알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5세 아이의 판단 또한 6세 아동보다 생각에 뒤지지 않는다는 점과 언쟁에 있어서는 앞선 다는 것이다. 또 이들의 대화에서 두 아이의 이야기 모두에 수궁이 가며 나름대로의 哲理에 是是非非를 따지는 것은 무색해진다. 이와 같은 상황의 전개는 漢代로부터 儒家사상을 이어받아 교육하는 동시에 자연스러움을 인정하는 魏晉 사회였기에 가능한 것으로 유추된다.

55) 어려서 이처럼 예를 안 范宣은 서인에 된 이후의 행적과 품행에 대한 기록이 많이 전한다. 『晉書』「宣別傳」에 范宣은 품행이 청렴결백하여 韓豫章이 그에게 비단 백 필을 주었으나 받지 않았다. 다시 오십 필을 감하여 주었으나 역시 받지 않았다. 이렇게 반씩 감하여 마침내 한 필까지 내려갔으나 끝내 받지 않았다. 韓豫章이 후에 범선과 함께 수레를 댔을 때, 수레 안에서 비단 두 장(丈)을 끊어서 범선에게 주면서 이르길: “사람이 어찌 자기 부인을 고쟁이가 없이 다니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자, 범선이 웃으면서 그것을 받았다. “宣潔行廉約, 韓豫章遺絹百匹, 不受; 減五十匹, 復不受; 如是減半, 遂至一匹, 既終不受. 韓後與范同載, 就車中裂二丈與范, 云: 人寧可使婦無幃邪?” 范笑而受之. 또한 어려서부터 方正한 태도를 지닌 范宣은 후에 太學博士와 散騎常侍에 초치되었으나 한 군데도 나아가지 않았으며 집이 매우 가난하여도 예장태수와 殷羨이 범선의 초가집이 성치 못한 것을 보고 집을 고쳐 주고 자 해도 극구 사양하는 청렴한 성품으로 이어진다. 또한 학문 매진으로 三禮에 정통하고 후에 『禮易論難』 등을 저술하였다.

56) 言語, 第4條.

陳太丘(陳寔)가 친구와 함께 출타하기로 약속했다. 정오에 약속했는데 정오가 지나도록 도착하지 않자 陳太丘는 그냥 떠났고 그 후에 친구는 도착했다. 원방(元方: 陳紀)은 당시 나이가 7살이었는데 대문 밖에서 놀고 있었다. 손님이 원방에게 묻길: “존친께서는 계시는가?”라고 하자, 대답하길: “당신을 오래 동안 기다려도 오시지 않아서 이미 떠나셨습니다.”라고 했다. 친구가 화를 내며 말하길: “사람도 아니군, 남과 함께 출타하기로 약속해 놓고는 버려두고 그냥 떠나다니!”라고 하자, 원방이 말하길: “당신이 부친과 정오에 만나기로 약속해 놓고 정오가 지나도록 도착하지 않은 것은 신의가 없음이며, 자식을 대놓고 아버지를 욕하는 것은 무례합니다.”라고 했다. 친구가 무색해하면서 수레에서 내려 불렀지만 원방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陳太丘與友期行, 期日中, 過中不至, 太丘舍去, 去後乃至. 元方時年七歲, 門外戲. 客問元方: “尊君在不?” 答曰: “待君久不至, 已去.” 友人便怒曰: “非人哉 與人期行, 相委而去!” 元方曰: “君與家君期日中, 日中不至, 則是無信; 對子罵父, 則是無禮.” 友人慙, 下車引之. 元方入門不顧.)⁵⁷⁾

‘손님’은 두 가지 큰 오류는 범했는데 첫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둘째, 스스로의 과오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식 앞에서 부모를 힐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元方은 하나하나 正正했는데 사리에 맞지 않는 바가 없으니 어른도 무색해질 수 밖에 없다. 元方의 행동은 그의 아버지 陳太丘가 약속시간을 엄수하는 것을 몸소 보인 것으로 습득된 신의 이며 부모는 늘 모범임이 부지불식간에 느끼고 禮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를 힐난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불과 7세 아동에 불과한 陳元方이 ‘禮’와, ‘信’을 행동의 규범에 어긋나고 부모에 무례한 손님에게 논리적이고 당당한 자세로 질책할 수 있는 것이다.

庾太尉(庾亮)는 풍모가 뛰어나고⁵⁸⁾ 위풍이 당당했으며 행동거지를 가볍게 하지 않았는데, 당시 사람들은 모두 일부러 꾸민 것이라고 생각했다. 庾亮에게는 몇 살 안된 큰 아들 ‘庾會’이 있었는데, 고상하고 장중한 성품이 바로 자연스럽게 그의 부친과 같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천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溫太真(溫嶠)이 일찍이 휘장 뒤에 숨어서 그를 놀래준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태연한 안색을 한 채 천천히 무릎을 꿇고 말하길: “君侯께서는 어찌하여 이러십니까?”라고 했다. 논자들은 그가 庾亮 못지않다고 평했다. 庾會는 蘇峻의 난 때 살해당했다. 어떤 사

람이 이르길: “阿恭(庾會)을 보면 元規(庾亮)가 일부러 꾸미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다. (庾太尉風儀偉長, 不輕舉止, 時人皆以爲假. 亮有大兒數歲, 雅重之質, 便自如此, 人知是天性. 溫太真嘗隱慢怛之, 此兒神色恬然, 乃徐跪曰: “君侯何以爲此?” 論者謂不減亮. 蘇峻時遇害. 或云: “見阿恭, 知元規非假.”)⁵⁹⁾

위의 고사를 통해 ‘有其父, 必有其子’, ‘龍生龍, 鳳生鳳’ 와 같은 思惟를 晉人の 모습에도 찾을 수 있다. 庾會의 태도가 그것을 증명해 주는데 가식이라 의심 받던 庾亮의 풍모는 아들의 고상함을 통해 사실화 된다. 아직 순수한 어린아이의 성품은 천성 그대로의 모습이므로 가풍이 그대로 전달되고 배어 나오는데 이를 통해 성인들은 가정의 모습과 더 나아가 사회를 읽고 미래를 본다. 또한 庾會의 일화를 통해 가식과 허식을 싫어하면서도 행동에 있어 방정함을 추앙하는 魏晉문인 도덕적 성품을 읽고 당시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필 수 있다. 다음의 고사도 가정 교육을 잘 받아 집안의 가풍을 실천하고 있는 아동과 관련된 것이다.

謝太傅(謝安)가 여러 자제와 조카에게 묻길: “너희들은 또한 어떻게 남의 일에 참여하여 그들을 훌륭하게 만들고자 하느냐?”라고 하자, 모두들 말하는 자가 없었는데, 謝車騎(謝玄)가 대답하길: “비유하자면 芝蘭과 玉樹를 그들의 섬돌과 뜰에서 자라게 하고자 할 따름입니다”라고 했다. (謝太傅問諸子侄: “子弟亦何預人事, 而正欲使其佳?” 諸人莫有言者. 車騎答曰: “譬如芝蘭玉樹, 欲使其生於階庭耳.”)⁶⁰⁾

謝氏 일가는 魏晉 시기 비중 있는 가문으로서 謝씨 일가는 『世說新語』에 총 26명이 246개의 고사에 전해진다.⁶¹⁾ 『世說新語』에 기록된 謝安의 가정교육을 보면 謝安은 늘 행동으로 모범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는데⁶²⁾ 앞의 고사에서 謝玄은 謝安의 질문의 저의를 파악하고 가르침을 취지에 따라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인다. 또한 그는 辭令 하는데 있어 『明心寶鑑』의 ‘與善人居 如入芝蘭之室, 與不善人居 如入飽魚

57) 方正, 第1條.

58) 庾亮의 풍모는 『世說』 言語篇, 30條에도 언급되어 있다.

59) 雅量, 第17條.

60) 德行, 第92條.

61) 「中國小說研究會報」第21集 “資料紹介” - 『世說新語』 人名(別稱·略稱·並稱) 索引 (金長煥) 참고.

62) 德行 第36條 謝公(謝安)의 부인이 자식들을 가르치면서 남편인 태부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나으리께서 자식 가르치는 것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습니까?”라고 하자, 사공이 대답하길: “나는 항상 자식들을 가르치고 있소.”라고 하였다.

之肆'의 구절⁶³⁾을 통해 그 학문적 깊이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謝玄에 관해서는 『謝玄別傳』에 '謝玄은 청담에 능하고 名理에 뛰어났다.' 고 전해지며 그의 담론에 대해서는 『世說新語·文學篇』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는 司馬太傅과의 담론에서도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대화한다.⁶⁴⁾

『世說新語』에는 禮와 信義를 실천하고 어린아이 같지 않은 단정한 행동을 취하는 아이 외에도 용감함 등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 힘의 역량에 의지하기 이른 아이들의 용감함은 주로 지혜로부터 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 몇 편의 고사를 통해 『世說新語』에서 주목하는 魏晉 아이들의 대담함을 살펴보겠다.

魏 明帝(曹叡)가 宣武場에서 호랑이의 발톱과 이빨을 자른 뒤 백성들에게 마음껏 구경하도록 했다.⁶⁵⁾ 당시 7살이었던 王戎도 구경하러 갔다. 호랑이가 틈을 엿보다가 울타리에 걸터 올라 포효하자 그 소리가 땅을 진동시켰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뒤로 물러나다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야단이었지만, 王戎은 태연히 움직이지도 않았으며 두려운 기색이 전혀 없었다. (魏明帝於宣武場上, 斷虎爪牙, 縱百姓觀之. 王戎七歲, 亦往看, 虎承間攀欄而吼, 其聲震地, 觀者無不辟易顛仆: 戎湛然不動, 了無恐色).⁶⁶⁾

王戎은 이미 앞에서 오얏 나무와 관련된 일화를 통해 그 지기를 인정받은 바 있다. 사나운 동물 앞에서 의연한 자세를 취한 王戎의 자세로부터 그의 대담함을 엿볼 수 있다. 발톱과 이빨 빠진 호랑이 관람은 明帝의 취미였는데 『竹林七賢論』에 보면 '명제는 누각 위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다가, 사람을 보내 王戎의 성명을 묻게 했으며⁶⁷⁾ 그를 남다른 인물이라 생각했다.' 는 기록이 전한다. 이렇듯 魏晉시

63) 『明心寶鑑·交友篇』, '與善人居 如入芝蘭之室, 與不善人居 如入飽魚之肆' 선한 사람과 더불어 지내면 마치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고, 선하지 않은 사람과 지내면 마치 썩은 생선 가게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다.

64) 文學 第58條 司馬太傅(司馬道子)가 謝車騎(謝玄)에게 묻길: "惠子(惠施)는 저서가 다섯 수레나 되는데도 여찌하여 현묘한 경지에 도달한 말이 한 마디도 없습니까?"라고 하자, 사안이 말하길: "틀림없이 그 현묘한 부분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오."라고 했다.

65) 『水經注』 卷16, 『穀水』에 인용된 『竹林七賢論』에 따르면, 明帝가 이곳에 울타리를 설치하고力士들에게 호랑이와 격투하게 하여 백성들에게 구경하도록 했다고 함. "魏明帝于宣武場上爲欄苞虎阱, 使力士袒裼, 迭與之搏, 縱百姓觀之."

66) 雅量, 第6條.

67) 『竹林七賢論』: "明帝自閣上望見, 使人問戎姓名而異之"

기 아동에 대한 평가는 禮와 膽 모두 중요시 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아동의 대범한 태도와 관련해서는 어린나이에 아버지가 잘라주는 소의 심장을 받아먹은 王右軍의 아들에 관한 고사가 전해지는데⁶⁸⁾ 이 일로 사람들은 아들 뿐 아니라 아버지 王右軍도 달리 보게 되었다고 한다.⁶⁹⁾

다음은 아이의 천진함과 수순함을 인정하는 당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고사이다.

謝奕이 劓의 현령으로 있을 때, 한 노인이 법을 어겼다. 그래서 사혁이 독한 술로써 그를 벌주었는데, 이미 과도하게 취했는데도 그만 두지를 않았다. 동생 太傅(謝安)는 그때 나이가 일곱 여덟 살쯤 되었는데, 푸른 바지를 입고 형의 무릎가에 앉아 있다가 간언하길: "형님! 노인이 정말 불쌍합니다. 어찌 이렇게 까지 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였다. 사혁이 이에 용모를 가다듬으며 말하길: "아우야 그를 놓아주고 싶으냐?"라고 하고 마침내 그를 보내주었다. (謝奕作劓令, 有一老翁犯法, 謝以醇酒罰之, 乃至過醉而猶未已. 太傅時年七八歲, 箸青布袴在兄膝邊坐, 諫曰: "阿兄, 老翁可念, 何可作此?" 奕於是改容曰: "阿奴欲放去邪?" 遂遣之.)⁷⁰⁾

『世說』에서는 孝行이나 勇敢함외에도 아이들만이 갖고 있는 수순함에 대해서도 기록한다. 謝奕의 가혹한 벌 앞에서 7, 8세였던 謝安⁷¹⁾의 수순함으로부터 지극한 동정심이 발로한다. 아동의 수순함에서 起緣한 제안은 현령의 조치도 변화 할 수 있는 힘을 지닌다. 이 고사를 통해 어린의 감성과 그러한 감성을 수용 할 줄 아는 魏晉인의 자유로움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아동의 방정한 태도를 통해 미래를 예견한 기록도 보이는데 謝安이 10세 때 병상에서 일어나서까지 支遁과 담론을 했다는 것⁷²⁾ 賞譽 第6條에서 "裴楷

68) 『晉書』 卷280 「왕의지진」에 年十三, 嘗謁周顛, 顛察而異之. 時重牛心炙, 座客未噉, 顛先割啗義之, 於是始之名의 기록이 있다. 이로 미루어보아 王右軍은 당시 13세였으며 그의 용감함은 가견할 만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69) 汰侈, 第12條. 王右軍少時, 在周侯末坐: 割牛心噉之, 於此改觀.

70) 德行, 第33條.

71) 『文字志』: 謝安은 자가 安石이며 謝奕의 동생인데, 대대로 학덕이 있었다. 謝安은 사물의 이치에 널리 통달했으며 온아하고 부드러운 성품이었다. 그가 네 살 때 桓彝가 보고 칭찬하여 말하길: "이 아이는 風骨이 뛰어나므로 틀림없이 王東海의 뒤를 이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行書에도 뛰어났다. 太保와 錄尚書事에 여러 번 등용되었으며, 죽은 후 태부에 추증되었다.

는 淸通하고 王戎은 簡要해서 후에 틀림없이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평가⁷³⁾ 識鑒 第27條에서 王胡之가 부모에게 車胤에 대해 칭찬하고 실제로 車胤이 남다른 교육을 받고 명사들의 사회에서 칭아하고 달통한 인물로 알려져 選曹尙書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기록한다.⁷⁴⁾ 또 賞譽 第29條에 阮渾의 넓은 기량, 嵇紹의 청강 아정함, 山簡의 대범 소탈함, 山簡의 겸허하고 화평하여 뜻이 고원함 阮孚의 활달·명랑함 向秀의 두 아들 向純·向悌 모두 품행이 훌륭하여 맑은 풍모가 칭아함 등을 기록한다. 또 王戎의 아들 王萬子는 대성할 자질을 지니고 있었으나 요절했다고 전한다.⁷⁵⁾ 方正 第15條에서는 아들 山該의 태도가 山公보다 나올 때 아버지보다 낫다는 평을 서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 대해 호평한 기록도 있는데 賞譽 第49조, 같은 편 52조에서는 각각 王大將軍, 王敦이 아들을 王平子가 자신의 막내아들의 비범함을 다른 이에게 전하여 알리고 있다.

2.3. 『世說新語』와 俊才 기록의 關係

2.3.1 政局不安과 早期 人才發掘

魏晉시기 영재를 주목하는 원인은 우선 한말에서 魏晉에 300여 년간은 계속되는 정국불안·왕건붕괴·國歌分裂 등으로 사회와 정치가 危在旦夕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이 시기 설령 사대부 명문가의 명예를 누렸다 하더라도 滅族이禍로부터

72) 文學, 第39條. 林道人詣謝公, 東陽時始總角, 新病起, 體未堪勞; 與林公講論, 遂至相苦. 母王夫人在壁後聽之, 再遣信令還, 而太傅留之. 王夫人因自出云: “新婦少遭家難, 一生所寄, 唯在此兒.” 因流涕抱兒以歸.

73) 賞譽, 第6條: 王濬沖·裴叔則二人, 總角詣鍾士季; 須臾去後, 客問鍾曰: “向二童何如?” 鍾曰: “裴楷淸通, 王戎簡要. 後二十年, 此二賢當爲吏部尙書, 冀爾時天下無滯才.”

74) 識鑒, 第27條: 車胤父作南平郡功曹, 太守王胡之避司馬無忌之難, 置郡于鄴陰. 是時胤十餘歲, 胡之每出, 嘗於籬中見而異焉; 謂胤父曰: “此兒當致高名!” 後遊集, 恒命之. 胤長, 又爲桓宣武所知. 淸通於多士之世, 官至選曹尙書.

75) 賞譽 第29條: 林下諸賢, 各有儁才子: 籍子渾, 器量弘曠; 康子紹, 淸遠雅正; 濤子簡, 疎通高素; 咸子瞻, 虛夷有遠志; 瞻弟孚, 爽朗多所遺; 秀子純·悌, 並令淑有淸流; 戎子萬子, 有大成之風, 苗而不秀; 唯伶子無聞. 凡此諸子, 唯瞻爲冠, 紹·簡亦見重當世.

자유롭긴 어렵고 10명이 천거되면 10배에 달하는 수의 사람이 길을 달리 했다.⁷⁶⁾ 또한 설령 任使했다 하더라도 명이 길지 못했다는 것⁷⁷⁾은 당사자들에게도 불안한 사항이며 국가에 있어서도 안정된 정국을 도모하기 어려운 여건이 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고대 중국은 조기 인재 발굴이 절실히 적극적으로 비범한 인물을 모색하고 부단히 인물 품평서를 내놓아 인물 감별에 주의를 기울여 왔다. 『漢書』의 『古今人表』와 『人物志』 등이⁷⁸⁾ 바로 이 같은 시대상을 대변하는데 이 들은 주로 일물을 등용할 때 시 성인이 된 후 이전의 전적에 대한 기록이며 어린 시절부터의 관찰을 통한 인물 평가와 감별은 아니었다. 그런데 전체가 인물품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世說新語』는 『古今人表』와 『人物志』의 品鑑 정신을 계승하는 한편 그 영역과 범위를 확장하여 인물품평의 정수를 이루게 했으며 여기서 가능성이 엿보이는 아동에 대한 품평을 놓치지 않았다. 전대의 품평감별이 계승되고 시기적인 필요성이 맞물려 『世說』에서는 조기 인재 발굴에 주의를 기울이고 100여 편의 고사에서 아동 일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고대로 인물을 감별을 통하여 用人을 잘하는 것을 국정을 꾸리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여겼던 것은 『三國志·蜀書·龐統傳』의 기록을⁷⁹⁾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이와 대응하여 인재를 감별하는

76) 『魏晉南北朝思想史』 第3章. 217쪽.

77) 이와 같은 인물천거의 중요성에 대한 일화는 『世說新語』에도 나온다. 言語, 第42條: 擘瞻은 일찍 4군의 태수와 大將軍(王敦)의 戶曹參軍을 역임했으나 좌천되어 內史가 되었는데, 그 때 나이 겨우 29살이었다. 일찍이 왕돈에게 작별할 때 왕돈이 지침에게 말하길: “경은 나이가 아직 30도 안되었는데 이미 萬石의 봉록을 받으니 너무 이른 것 같소”라고 하자, 지침이 말하길: “장군께 비하면 약간은 너무 이른 것 같지만, 甘羅에 비하면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라고 했다. 擘瞻曾作四郡太守, 大將軍戶曹參軍, 復出作內史, 年始二十九. 嘗別王敦, 敦謂瞻曰: “卿年未三十, 已爲萬石, 亦太蚤!” 瞻曰: “方於將軍, 少爲太蚤; 比之甘羅, 已爲太老.”

78) 『漢書』의 『古今人表』年表로 구성 되어있다. 그러나 『古今人表』는 개인의 지식으로 고급의 수 천 명에 달하는 인물의 고하를 평가 분류한다는 것 등에 대해 보편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人物志』는 劉邵가 曹操의 重材主義 정책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저술한 책으로 인성과 개성 품격 등은 완전히 무시한 채 오직 능력의 고하만 판단하는 편향된 인물 고리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두 책 모두 人事에 있어 德行과 仁義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才智와 능력위주의 인재 선발이었다. 魏晉 시기는 국가 전체가 혼란했기 때문에 曹操는 당시 인물등용에 있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가 세운 대책은 결론적으로 능력 있는 인물을 등용함으로써 혼란에 빠진 국가를 난국에서 구해보려는 뜻이었다. ‘오직 능력 있는 자 만을 뽑는다’는 曹操의 漢代와는 차별화 된 관료 선발제도는 곧이어 인물품평을 성행하게 했고 이 시기 정책적으로 인물 품평서가 창작되었다. 張蓓蓓 『漢晉人物品鑑研究』 臺灣國立政治大學校 碩士論文 1982. 253~292쪽.

혜안을 갖는 것의 중요성과 또 인물 식별을 잘 못하여 화를 입게 되는 『左傳·文公元年』의 기록은 정확한 인물 감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것을 보여 준다.⁸⁰⁾ 이렇듯 중국 고대 사회는 조기 인재발굴과 육석감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고 문학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이 사회 점철된 魏晉시기 창작된 『世說新語』에서는 나이 어린 사람들을 관찰하고 적극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2.3.2 魏晉 教育和 英才兒童

魏晉시기 영재아동을 적극 인정한 분위기는 당시 교육에서도 찾을 수 있다. 漢末魏初 학교 교육은 존폐의 위기에 처했고 당시 官學의 쇠락은 私學의 부흥을 불러 일으켰다.⁸¹⁾ 또 교육의 내용과 방법, 학교 제도 에도 새로운 변혁이 추구되었는데 漢의 교육을 계승한 西晉의 國子學과 太學, 북위의 郡國學校등은 전대의 교육 계승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했고, 獻文帝(466년) 시기에는 주나 군 지역에 보편적으로 학교를 설치하도록 하는 주군학교제도를 건립하여 운용하였다. 이로서 학생의 입학자격을 집안이 높거나 부유한 경우 우선적으로 입학시켜 귀족집단이 특권을

79) 『左傳·文公元年』 子上一이 이르길, “군주는 춘추가 아직 많지 않고 사랑하는 자제가 많습니 다. 태자를 미리 정했다가 훗날 내치면 화란이 일게 됩니다. 초나라는 줄곧 태자를 세울 때 나이 어린 왕자를 택했습니다. 게다가 상신은 상이 繼目豺聲으로 흉상인 데다가 잔인하기 까지 하니 그를 태자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왕은 이를 듣지 않고 상신을 태자로 세웠다. 이후 초성왕은 마음이 변해 상신을 내쫓고 황자 직을 태자로 세우려 했다. 상신도 이 소문을 듣게 되었으나 알 길이 없었다. 10월 겨울 상신이 태자궁을 지키는 위사들을 이 끌고 가 왕궁을 포위했다. 그러자 궁지에 몰린 초성왕이 삶은 웅변을 먹은 뒤 죽겠다고 했 으나 상신을 속셈을 읽고 들어주지 않았다. 10월10일 왕은 縊死했다. 子上一曰: “君之齒未也. 而又多愛, 黜乃亂也. 楚國之舉. 恒在少者. 且是人也. 蜂目而豺聲, 忍人也, 不可立也.” 弗听. 既 又欲立王子職而黜大子商臣. 商臣聞之而未察 冬十月……以宮甲圍成王. 王請食熊蹯而死. 弗听. 丁未, 王縊.

80) 龐統은 자가 士元이고 襄陽郡 사람이다. 어린 시절에 질박하고 무더서 그를 알아주는 자가 없었다. 潁川의 司馬徽는 清雅 사람을 알아보는 鑑識이 있었다. 방통이 약관이 되었을 무렵 司馬徽를 찾아가 뵈었는데, 司馬徽는 나무 위에서 뽕잎을 따고 방통은 그 나무 아래 앉아 낮부터 밤까지 같이 얘기를 나누었다. 司馬徽는 방통을 기이하게 여겨, 방통이 응당 남주“南州: 중원에 비해 남쪽지방의 통칭입니다”의 선비들 중 으뜸이라 칭찬하니, 이때부터 점차 알려지게 되었다 『三國志·蜀書·龐統傳』龐統字士元, 襄陽人也. 少時樸鈍, 未有識者. 潁川司馬徽?雅有知人鑒, 統弱冠往見徽, 徽採桑於樹上, 坐統在樹下, 共語自晝至夜. 徽甚異之, 稱統當南州士之冠冕, 由是漸顯.

81) 「識論中國古代教育發展週期」 23쪽, 華東師範大學學報 第23卷 美國鈞·杜成憲 2000.06.

향유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귀족자제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었다. 이 밖에도 율학박사, 書法博士 등과 같은 전문학교가 설치되어, 유학 외에도 현학, 사학, 문학 등의 과가 설립되고 의학 이 개설되는 등, 분과 수업제도도 발전을 보였다. 또 漢代 儒學의 독존으로부터 儒, 釋, 道의 사상이 고루 퍼지면서 모든 방면이 교육되고, 과학기술의 전수도 학교교육에서 일정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의 실행 효과와 성취는 『世說新語』에 등장하는 兒童이 과학적 사실에 입각한 판단을 내린다는지 무비관 적으로 어른들의 말만 추종하지 않는 사례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공교육의 정비뿐만 아니라 당시 가정교육 또한 魏晉 영재아동의 발전에 일조하는데 당시의 가정교육은 대부분 봉건대가족 내부의 교육으로서 자기 문벌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이용되었고 가학의 우열이 문벌의 높고 낮음에도 관계가 되었 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교육의 열을 높여 갔다. 따라서 가문을 계승하고 문중의 성장과 직결되는 아동 교육에 힘을 쏟고 재능 발굴에 큰 관심이 기울여 진 것이다. 이러한 魏晉시기 새로운 교육제도의 도입과 교육사상⁸²⁾의 개혁은 당시 아동교육에 灌注했다는 것과 조기 인재를 육성 발굴에 노력을 기울인 사실을 반증하며 아동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교육을 향유할 수 있고 사상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시기가 되기도 한다.

82) 官學, 私學의 설치 외에 사상에도 큰 변화를 보이는데 이는 표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春秋戰國시기인 BC600년~BC500년사이, 魏晉시기인 200년~400년사이, 兩宋시기인 1100년~1250년 사이, 明清시기 4번의 교육사상의 혁신기를 보인다. 이는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美國鈞, 杜成憲 「論中國古代教育發展週期」 上海:華東師範大學學報, 第23卷 2쪽 참조.



中國古代教育革新思想變化推移表

3. 結論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世說新語』이전의 중국 문학은 영재와 어린 인재에 대해 서 큰 관심을 두지 않았고 인물의 어린 시절을 미미하게 남겨 기록의 역사만을 완전히 단절하지 않고 있다. 그러던 것이 魏晉시기 이르러 아동 및 아동의 學文, 人品, 態度, 思想 등 여러 방면에 관심을 보이며 기록, 서술 하고 영재에 대한 전대미문의 호의적 태도를 취한다. 이와 같은 정황은 『世說新語』를 통해 확인 되었는데 名士의 逸文人事를 채집 수록하여 중국 최초의 志人 소설로 자리 매김한 『世說新語』는 兒役에도 독자적 영역과 가치를 인정하여 작품가운데 비중 있는 역할을 부여하였다. 『世說』에서의 兒役은 단순히 작품을 구성하는 인물로서의 역할만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 魏晉 名士들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魏晉사회를 반영하고 있다. 魏晉시기 아동이 기성세대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향유할 수 있게 된 까닭은 첫째 漢代 시작된 인물 품평에 대한 관심의 증폭, 둘째, 魏晉시기 정국의 불안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며 적극적인 조기 인재 발굴의 모색, 셋째, 전반적인 사회제도와 사상변화에 따른 교육제도의 일대 개혁, 등에서 기인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 사회는 다양한 학풍과 재능을 인정하고 아동의 여러 방면에 걸쳐 가능성을 인정하고 用人의 근거로 삼으려는 자세를 취하고 아이들은 사회 요구에 따라 조속해져 정치상의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에 나서게 된 것이다. 魏晉에 접어들어 人物品鑑정신을 계승하고 기록한 것 교육 체제를 정비하고 다양한 방면의 교육을 부흥하여 아동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영재 발굴에 힘써온 것 등이 『世說新語』에 많은 영재아동의 기록이 남게 된 요인으로 유추 할 수 있다.

< 參考文獻 >

『史記』
『晉書』

『三國志』

『論語』

『詩經』

余嘉錫 『世說新語箋疏』 上海: 古籍出版社, 1993.

楊 勇 『世說新語校箋』 臺灣: 正文書局, 1992.

張萬起 『世說新語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1993.

金長煥 『世說新語』(上·中·下) 서울: 살림出版社, 1996·1997·2000

寧稼雨 『世說新語與中古文化』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4.

范子焯 『中古文人生活研究』 中國: 山東教育出版社, 2001.

李清筠 『魏晉名士人格研究』 臺灣: 文津出版社有限公司, 2000.

朴美頌 『世說新語中所反映的思想』 臺灣: 文津出版社印行, 1990.

胡友鳴 『世說新語的名士風度』 臺灣: 大村文化出版社, 1998.

蔣 凡 『世說新語研究』 臺灣: 學林出版社, 1998.

魯 迅 『中國小說史略』 “魯迅全集9”,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1.

毛禮銳, 沈灌群 『中國教育通史』 山東: 山東教育出版社, 2001.

孫培青, 李國鈞 『中國教育思想史』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5.

姜國鈞, 杜成憲 『論中國古代教育發展週期』 上海: 華東師範大學學報, 第23卷 第1期 2005. 3.

張蓓蓓, 『漢晉人物品鑑研究』 臺灣國立政治大學校 碩士論文 1982.

廖麗鳳, 『世說新語之人物群像及描寫技巧研究』 臺灣師範大學碩士論文, 1989.

梅家鈴, 『『世說新語』名士言談中的用典技巧』 臺北: 『中文學報』2(臺大), 1988.

金長煥, 『『世說新語』人名(別稱·略稱·稱)索引』, 『中國小說研究會報』21, 서울: 中國小說研究會, 1995.3.

朴敬姬, 『世說新語中人物品鑑之研究』 臺灣政治大學碩士論文, 1982.

井波律子, 『中國人の機智—『世說新語』を中心として』, 東京, 中央公論社, 1983.

< 中文提要 >

如『史記』一樣的中國古典紀錄了名士的兒童時期, 可是『史記』並未特別強調天才秀出, 而『漢書』中也這類天才兒童的言及不多見. 但是到魏晉時期, 早秀人才既受到世人的關心, 又記錄了一舉一動. 『世說新語』這書大量記錄魏晉名士生活 並且記錄魏晉的俊才以及雋語. 其中不但在『夙慧篇』裏專門記載兒童故事, 而且在『言語』、『德行』、『識鑑』、『方正』篇中記載了

許多兒童有關的言談、品德、學文等等。『世說新語』里的兒童形象，作為魏晉名士成長階段的記錄，既含着深刻的社會思想文化意義，又有着那個時代社會思想文化的印記。可以說『世說新語』第一次開始觀注兒童的才能影響向未來的問題，並且代其研究了深入的研究分析。本論文就『世說新語』所記載的故事分析當時評估天才的標準，而探討何以魏晉人特別重視英才兒童的原因。

關鍵詞：世說新語、兒童(英才)、魏晉教育、智慧、素養、清談、典故、態度。